

‘불황 직격탄’ 지역 유통업계 힘들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3년간 광주 3.7%·전남11.4% ↓
작년 1.7%·6.9% 대폭 ↓…이마트 상무점 폐업 앞뒤

영업실적 부진으로 광주 이마트 상무점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불황 속 지역 유통업계의 어려움 현실이 데이터로 나왔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3년간(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6.3(2015=100)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중 백화점 판매액은 2.8%, 대형마트 판매액은 4.6% 각각 감소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1.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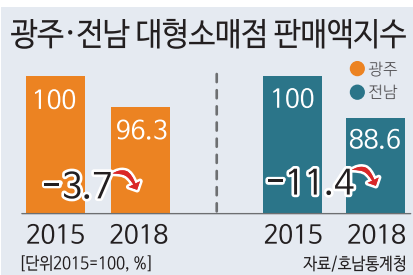
폭으로 줄었다.

광주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1조7천179억원으로 전국(63조4천39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쳤다.

지난해 광주 대형 소매점 판매액(1조7천179억원)은 2015년(1조7천56억원) 대비 0.7% 증가했다.

광주 대형 소매점 판매액 구성비는 백화점이 52.8%, 대형마트가 47.2%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 백화점 판매액 구성비는 0.1%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 구성비는 0.1%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 인구 1인당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120만원, 1가구당 판매액은 28



0만원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 유통업계의 상황은 광주보다 더 좋지 않다. 지난해 전남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7천805억원으로 전국(63조4천39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남도 판매액(7천805억원)은 2015년(8천386억원) 대비 무려 6.9%나 감소했다. 전남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도 88.6(2015=100)으로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

년 대비 2018년 판매액 지수는 11.4%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의 인구 1인당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40만원, 1가구당 판매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형소매점의 범위는 백화점의 경우 단일 경영체제 아래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이며, 다수의 매장으로 구축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대형마트는 면적 3천㎡ 이상의 매장을 갖추고 식료품·의복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마트 상무점은 애초 2021년 9월까지 계약한 건물 임대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의 임대 계약을 내년 3월 초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마트 상무점은 오는 18일 영업 종료 후 상품은 인근 점포로 옮길 예정이다. /임후성기자

光銀 “4주간 8천명에 선물” ‘오픈뱅킹 Weekly 이벤트’

광주은행은 4일부터 31일까지 ‘오픈뱅킹 Weekly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4주간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로 타행계좌 신규 등록 후 타행에서 광주은행(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 1만원 이상 이체 시 자동 응모되며, 주별로 선착순 2천명씩 총 8천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1주차(12월 4일~10일)에는 스타벅스 e-Gift Card 5천원권, 2주차(12월 11일~17일)에는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3주차(12월 18일~24일)에는 GS편의점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4주차(12월 25일~31일)에는 문화상품권 5천원권이 지급되는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경품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오는 16일부터 주별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성기자

직장인 73%, 연차휴가 다 못 썼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의 73%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1천65명)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업별로 보면 사원·주임·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했고,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3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김석기 본부장과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양용호 광주전남RPC협의회장, 참여농협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도’ 연간 매출액 첫 100억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농협제공

풍광수도 쌀 연간 매출액 첫 100억 돌파

“모두의 노력 결실”...전남농협, 기념행사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도’가 연간 매출액 첫 1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풍광수도’의 연간 매출액 첫 100억원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석기 농협전남 지역본부장과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양용호 광주전남RPC협의회장(금성농협 조합장)을 비롯 11명의 참여

농협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풍광수도가 2016년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했던 과정에서부터 2017년 첫 발돋움, 2018년 재도약 기반 마련, 2019년 브랜드 전국화를 만들어 낸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도 소개됐다.

기념행사 종료 후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규약 및 규정 변경, 신임 관리위원 선출, 순천농협 신규가입 승인 등 내년 마케팅 계획을 수립했다.

풍광수도는 2017년 연간 매출액 6억

원, 2018년 41억원을 돌파한 후 지난 10월 초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11월 말 기준 114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풍광수도 브랜드는 11개의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정기총회에서 순천농협이 신규 가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12개 농협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지역본부와 참여농협이 시장을 개척하고 전남도의 지원 등 모두의 노력으로 마침내 100억원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웠다”며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풍광수도 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현기자

매서운 겨울철 건강 지키기 비타민하우스 차가버섯 ‘썹’

최근 면역력 관리를 위해 차가버섯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프로그램의 단골 소재가 될 만큼 흔하고 대중적인 건강식품이 됐기 때문이다.

3일 비타민하우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산삼’으로 불리는 차가버섯은 시베리아 등 북위 45도 이상의 척박한 극동지역의 추위를 견디고 자작나무의 영양을 흡수하며 15년 이상 성장한다. 차가버섯을 채취하면 자작나무가 죽기 때문에 ‘자작나무의 심장’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악영양성으로 뛰어난 면역조절 효과가 있다. 섭취 대상이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겨울철 면역관리가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 가능하다.

◇영양 풍부·면역에 도움

차가버섯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로모겐 콤플렉스와 베타글루칸 때문이다.

‘크로모겐 콤플렉스’란 차가버섯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응집체로 다당체인 베타글루칸, 이노시톨,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SOD,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이 포함돼 있다.

즉 크로모겐 콤플렉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양이 풍부한 차가버섯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성분이며, 다당체인기 때문에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역할도 한다.



극한 추위 견딘 ‘러시아의 산삼’
환자·남녀노소 누구나 섭취
영양·면역조절 효과 뛰어남

◇우수한 품질·합리적인 가격

기존에는 차가버섯 원물을 구하더라도 60도 내외의 물에서 오랫동안 달여 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양분을 12배 농축한 동결건조 분말 형태로 차처럼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차가버섯 제품이 출시돼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항공 직수입한 차가버섯으로 주요 영양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동결 건조한 제품이다.

12배 농축으로 높은 영양과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현재 유통 제품 기준) 크로모겐 콤플렉스 52

% 이상, 베타글루칸 167.48mg/g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비타민하우스는 매년 차가버섯을 수입해올 때마다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 등 안전성과 함량을 확인하고 있다.

비타민하우스는 차가버섯이 고가라는 편견을 깨고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비타민하우스가 2016년 출시한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누적 매출 400억원, 200만병 판매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 냈다.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VH몰과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박은성기자

상점 전기요금 줄이는 4가지 방법

- ① 냉·난방 중일 때는 상점 문이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개방형 냉방, 냉동 진열장은 비닐 커튼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여주세요.
- ③ 전자제품과 콘센트, 멀티탭 등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세요.
- ④ 영업 종료 후 간판을 꺼두시면 시간당 0.5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지금 사면, 지금 배송!

프리미엄 배달대행 서비스 VROONG(부릉)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가맹점·전업기사 모집 (오치동,삼각동,일곡동,매곡동,용봉지구)

- 고정비는 줄이고 배달매출은 상승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절세 효과
- 주소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한 부릉POS연동
- 배송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배송 라이더 브랜딩
- 유연한 자동 배차 솔루션 보유
-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한 상점 컨설팅 제공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투자한

우량 중소기업 VROONG

네이버 최대주주

부릉일곡점 지사장 최영철

☎ 제후문의 1800-8255

☎ 문의 010-5807-0758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